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과 전시음악사회

남 영 희*

차 례	
1. 들머리	4. 전시음악단체의 결성과 활동
2. 근대 부산음악의 전통과 전중기 부산 음악	1) 전시작곡가협회와 작품활동의 다각화
3. 피란수도 부산과 전시음악사회의 형성	2) 실험악회와 새로운 음악적 모색
1) 한국전쟁과 음악사회의 재편	5. 마무리
2) 부산음악사회의 후원과 인적 교류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에서 펼친 전시음악사회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개항도시 부산은 근대계몽기부터 문화적 자산을 구축해 왔으며, 해방 이후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지역 음악사회를 형성해 나갔다. 한국전쟁은 문화의 지역재편을 통해 부산음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부산음악인의 피란음악인에 대한 후원은 전시음악활동의 기반으로 작용했다. 전시음악사회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부산음악사회의 재편도 가파르게 이루어졌다. 해방기 부

* 부산대학교 강사

산음악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교사-음악가와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활동은 전쟁기 이후 쇠퇴하였으며, 일부 음악인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칼날에 희생되기도 했다. 전후 부산에 잔류하거나 부산으로 이주한 음악인을 중심으로 부산음악사회가 새롭게 형성되었으며, 금수현, 윤이상, 배도순, 김점덕 등은 서울에서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전중기 결성한 전시작곡가협회와 실험악회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결과, 창작활동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음악의 본질적 가치를 모색하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전중기 음악은 반공주의와 국가주의의 자장 안에서 전시문화전선의 구축에 동원되는 한편 음악의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함께 전개한 셈이다. 이 연구를 통해 피란음악인이 전후 부산음악사회의 성장을 일방적으로 견인했다고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부산음악인들과 피란음악인들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시음악사회를 형성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제껏 단체명만 거론되었던 전시작곡가협회와 실험악회의 결성 동기, 구성원, 활동 양상을 실증자료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전시 부산음악의 실체를 해명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한국전쟁, 피란수도, 부산, 전시작곡가협회, 실험악회, 윤이상, 금수현, 배도순, 이상근, 김점덕

1. 들머리

해방과 한국전쟁은 현대사의 시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필연적으로 기존 체제의 파괴를 동반한 두 지점은 새로운 국가의 개념과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구조 재편이 뒤따랐다. 단정 수립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의

전면화 과정에서 우파 위주의 음악사회 재편은 한국전쟁기¹⁾를 거치며 더욱 공고해졌다. 전중기 음악인들은 군대를 기반으로 재집결하여 활동을 재개했다. 정훈음악 활동과 더불어 전쟁과 관련한 노래들이 양산되었으며, 오페라와 같은 대규모 공연도 개최하였다. 현대음악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도 이 무렵으로 1952년 나운영의 주도로 한국현대음악회가 설립되었으며,²⁾ 외국인 연주자의 내한공연과 우리나라 연주자의 미국 공연이 개최되기도 했다.³⁾

전중기 음악사회의 활동은 단연 피란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부산에서 펼쳐진 음악활동에 관해서는 일정한 연구성과를 축적하였다.⁴⁾ 그밖에 부산음악사⁵⁾와 부산음악인⁶⁾ 관련 연구에서도 전

-
- 1) 이 글에서는 1948년 8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부터 1954년에 이르는 시기를 폭넓게 ‘한국전쟁기’로 본 이순욱의 견해에 따라 단정 수립에서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를 전전기(戰前期),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시기까지를 전중기(戰中期),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부터 1955년 이전 시기를 전후기(戰後期)로 본다. 이순욱, 「정전체제의 형성과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 『지역과 역사』 제32호, 부경역사연구소, 2013, 37-65쪽.
 - 2) 한국현대음악회는 1957년 한국현대음악협회로 재발족하였으며, 국제현대음악협회(ISCM)의 한국지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 3) 이탈리아 테너 아리코폴라, 미국의 흑인 여가수 마리안 앤더슨의 내한 독창회, 미국 카네기홀에서 개최된 김자경 독창회가 대표적이다.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 양악 100년』, 현암사, 2001, 261-267쪽.
 - 4) 다음 논의가 대표적이다. 김창욱, 「광복-한국전쟁기의 부산음악계: 부산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제16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0, 278-346쪽; 김창욱, 「한국전쟁기 부산음악의 사회사」, 『음악학』 제8집, 한국음악학학회, 2001, 85-129쪽; 제갈삼, 「한국전쟁기 부산음악의 실상: 음악인·음악단체·연주회장·감상실 등을 중심으로」, 『음악학』 제8집, 한국음악학학회, 2001, 131-184쪽;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피란수도 부산의 문화예술』, 2015.
 - 5) 류혜운, 「부산음악사(1946-1965)」, 『음악과 민족』 제16호, 민족음악학회, 1998, 7-28쪽; 조선우·이기정·김원명, 「부산음악사 서술을 위한 시론」, 『음악과 민족』 제19호, 민족음악학회, 2000, 71-121쪽; 제갈삼, 『초창기 부산음악사』, 세종출판사, 2004; 제갈삼, 『잊을 수 없는 음악인과 음악회』, 세종출판사, 2006; 제갈삼, 『부산, 경남지역의 음악문화유산과 그 궤적』, 세종출판사, 2007.
 - 6) 김원명, 「박이옥의 음악세계와 부산 음악문화에 끼친 그의 영향」, 『음악과 민족』

중기 음악활동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란수도 부산에서는 서양음악, 전통음악, 대중음악 등 다양한 음악활동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는 한국전쟁기 부산음악사의 뼈대를 구축했다는 점, 국가음악사 서술에서 배제된 부산음악의 결락지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음악사료의 부족에 따른 혼란이 깊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는 주로 지역에서 발간한 신문 매체의 기사와 평문, 부산음악인들의 회고에 기댄 바 크다.⁷⁾ 기억이나 기록의 오류, 근거 없는 추정이 적지 않으며, 단체 활동에서도 명칭과 성격, 구성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재생산되고 있다. 다른 매체의 기사나 사료, 팸플릿, 악보와 같은 실증자료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쟁기 피란수도의 음악활동이 부산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산이 전시음악사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음악인들이 부산에 모여들었기 때문이며, 피란음악인에 의해 부산음악이 부흥기를 맞이했다는 소박한 인식에 머물러 있다. 이는 식민지시대와 해방기 부산음악의 전통을 부정하고 지역의 문화적 응전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에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다. 전시음악사회가 부산음악사회에 일정한 자양분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국에서 모여든 음악인과 음악단체가 전시

제23호, 민족음악학회, 2002, 115-136쪽; 주은경, 「부산교향악운동의 선구자, 오태균」, 『음악과 민족』 제27호, 민족음악학회, 2004, 127-145쪽; 윤성원, 「부산음악인, 김창배 연구」, 『음악과 민족』 제27호, 민족음악학회, 2004, 83-104쪽; 남영희, 「김학성의 삶과 음악활동」, 『인문과학』 제122집,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199-243쪽; 이순욱 외 여럿, 「한국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음악, 작곡가 이상근」, (재)부산문화재단, 2022.

7) 『부산일보』, 『국제신보』의 기사와 평론을 비롯해 다음 기록이 남아있다. 방부원, 「해방에서 5·16까지의 부산음악계」, 『(팸플릿) 부산 원로음악가 연주회』, 악천회 주최, 부산산업대 콘서트홀, 1985.6.11, 13-17쪽; 박형태, 「음악계의 뿌리와 맥」, 『산여울』 제7집, 부산전문대학, 1986, 35-41쪽;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4권, 1991.

음악사회를 주도했다고 보는 시각은 단선적이다. 따라서 부산음악사회가 한국전쟁이 촉발한 음악사회의 지역적 재편에 어떻게 응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산음악사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피란수도 부산에서 전개된 전시음악사회의 활동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전시음악사회의 형성과 활동, 피란음악인과 지역음악인의 교류를 살펴볼 것이다. 전시작곡가협회, 실험악회, 이상근작곡발표회 등의 팸플릿, 학교자료, 신문잡지 기사, 음악인과 결사인들의 회고 등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전시작곡가협회와 실험악회는 이제껏 선행연구에서 이들 단체를 언급하고 있으나, 결성 시기나 동인 명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드물었다.⁸⁾ 이 자리에서는 전시작곡가협회 제1회 작품발표회(남선여중, 1951.7.7) 팸플릿과 실험악회 관련 신문기사, 음악회 팸플릿(1957)을 발굴하여 전시음악단체의 실체에 다가서고자 한다.

2. 근대 부산음악의 전통과 전중기 부산음악

개항도시 부산은 근대계몽기부터 외래문화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다. 1800년대 말부터 설립·운영된 실내극장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공연과 영화가 널리 유통됨으로써 관람문화가 일찍부터 형성되었

8) 전시작곡가협회를 언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은영, 「1950년대 양악작곡가들이 상상한 국민음악: ‘국민’과 ‘민족’ 사이에서」, 『음악과현실』 58호, 민족음악학회, 85-114쪽; 신혜승, 「음악에 담긴 전쟁의 기억: 피난지 전시동요 연구」, 『음악과현실』 61호, 2021, 69-114쪽. 실험악회를 다루고 있는 부분적인 논의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유신, 「해방 후 이십년의 부산음악」, 박원표 엮음, 『개항구십년』, 태화출판사, 1966, 315-324쪽; 박두석, 『부산의 예술문화』, 부산일보사 출판국, 1991, 55쪽; 제갈삼, 앞의 책, 2006, 52쪽.

다. 일본 거류민 상업활동을 기반으로 신문잡지의 발행과 유통, 방송의 전파가 빠르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일본인과 함께 구성한 방송관현악단, 부산음악단, 부산음악연구회와 같은 음악단체도 여럿 활동했다. 문화예술의 수용과 향유, 콘텐츠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 부산은 근대의 세례를 충분히 받은 지역인 셈이다.

해방과 더불어 일본 유학을 마친 음악인들이 유입되면서 음악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금수현 주도로 경남음악협회, 경남음악교육연구회가 설립되었으며, 음악매체 『음악주보』가 발행되었다. 노래하자회를 통해 노래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연주단체도 여럿 활동했다. 김학성의 부산관현악단, 한상기의 경음악단 신조선관현악단을 비롯해 김학성의 현악사중주단과 배도순의 현악사중주단이 활동했으며, 같은 이름의 부산합창단이 4개나 존재했다. 부산극장은 전속예술단 새들예술원을 두었으며, 정복갑, 윤이상, 배도순 등을 중심으로 설립한 부산음악가협회는 순수음악을 지향한 실내악 단체였다. 그밖에 각 중등학교에서는 학생을 중심으로 음악극, 합창, 관악밴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때 학교의 학예활동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의 문화콘텐츠로 폭넓게 소비되었다.

연주자는 성악과 기악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했다. 일본 유학 출신이 많았으며, 전문음악인뿐만 아니라 교사-음악인, 딜레탄티즘을 기반으로 한 아마추어 연주자 등 성격이 다양했다. 금수현, 윤이상, 박용식, 최덕해, 최술문을 중심으로 창작활동도 활발했다. 금수현, 박용식, 홍일파, 김점덕 등을 중심으로 한 음악비평은 서양 추수주의와 배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도악단의 현실 진단 및 음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장이기도 했다. 전문음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기관도 운영하였다. 김학성의 부산음악전문학교와 부산사범학교 중등음악교사 양성과가 그 예다. 『중등가곡집』, 『노래공부』,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 『짜쓰명곡집』, 『이재호신작곡집 1-고향』 등 음악서적도 여럿

발간하였다.

무엇보다 부산에는 음악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연장이 여럿 존재했다. 극장, 학교, 다방, 미국공보원이 대표적이다. 독립부산극장, 부민관, 조선극장, 제일극장 등이 주요 공연장이었으며, 경남여중, 경남중, 부산여중, 남조선여중, 부산사범학교, 동광국민학교 등 일선 학교가 콘텐츠의 생산과 향유 공간으로 기능했다. 에텐, 문화장, 카라방, 춘추, 늘봄, 백미(白美), 오리온 등 다방은 음악감상실, 음악인들의 사교장, 문화사랑방이었다. 특히 부산미국공보원은 지역분관으로 다양한 공연과 행사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음악활동이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부산은 음악사회가 형성·성장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⁹⁾

두루 알다시피 전쟁기에 예술은 국가주의적 기획 아래 동원되곤 했다. 한국전쟁기 음악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사회를 이데올로기의 전장이라 부른 만큼 반공주의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전쟁기 음악은 국가주의와 반공의 논리 속에 전시문화전선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다.¹⁰⁾ 전시 음악인들이 연주활동의 맥을 이을 수 있었던 기반은 군

9)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제갈삼, 앞의 책, 2004; 남영희·이순옥, 「해방기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지역분관의 설립과 문화활동」, 『석당논총』 제30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0, 78-109쪽; 남영희, 「해방기 부산 음악사회의 동향과 연주단체」, 『지역과 역사』 제47호, 부경역사연구소, 2020, 285-325쪽; 남영희,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남영희·이순옥, 「해방기 부산 음악교육기관과 음악교육」, 『인문연구』 제97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211-247쪽; 남영희, 「해방기 김학성의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과 노래의 정전화」, 『한국문학논총』 제88집, 한국문학회, 2021, 89-136쪽.

10) 대한민국 창군의 역사와 맥락을 함께하는 군악대는 해방기부터 부산에서 연주 활동을 펼쳤다. 육군군악대의 대한민국 유엔승인 경축대회(대신동 공설운동장, 1948.12.15), 육군군악대 취주악대 연주(부산극장, 1949.4.26), 해군군악대 대연주회(도립부산극장, 1947.11.11./공회당, 1949.3.10~11), 경찰악대 국민보도연맹 경상남도 연맹 선포대회(남일국민학교 강당, 1949.11.20) 등이 대표적이다.

악대였다. 전쟁기 부산에는 육군군악학교 연주대, 육군교향악단, 해군군악대, 해군정훈음악대 등이 주둔하였으며, 공군군악대, 경찰취주악대를 비롯해 해군어린이음악대 등이 활동했다. 서울과 대구 등 전국 음악인들이 이 단체들의 지휘자, 교관, 단원으로 활동했다. 부산음악인들은 해군정훈음악대, 육군군악대 등 군악대에 입대하여 대원으로 활동하거나 연주단체가 군악대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유지했다.¹¹⁾

개인 독주회와 독창회, 작품발표회 역시 여럿 개최되었다. 부산음악인으로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배도순과 김학성이 대표적이다. 배도순 제1회 바이올린 독주회(해군정훈악대홀, 1951.11.7), 배도순 제2회 독주회(대한부인회관, 1953. 5.18), 김학성 제금독주회(남성여고 강당, 1953.4.7.~8)¹²⁾가 열렸다. 피란음악인의 개인활동도 활발했다. 김순애 제2회 작곡발표회(남성여중 강당, 1951.10.9), 윤용하 가곡작곡발표회(이화여대 강당, 1952.10.27), 이상근 제2회 작곡발표회(이화여대 강당, 1952.12.6),¹³⁾ 유경손 독창회(향서교회, 1952.12.9), 오일석 독창회(해병사령부 강당, 1953. 4.4), 정진우 독주회(이화여대 강당, 1952.11.15) 등이 열렸다. 해군정훈음악대에서 “대원의 음악적 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향상음악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기록에 남지 않은 독주회나 독창회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¹⁴⁾

11) 부산관현악단과 육군교향악단의 결합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전쟁기 정훈음악과 부산에서의 군악대 활동은 지면을 달리해 논의할 예정이다.

12) 김학성은 해방기부터 꾸준히 독주회를 개최했으며, 이 공연은 세 번째 독주회다. 해방기 부산에서는 김학성뿐만 아니라 테너 고태국, 바리톤 김점덕, 테너 정복갑이 독창회를 열었다.

13) 마산여고 음악교사로 활동한 이상근의 작곡발표회에는 피란음악인들이 결합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안용구, 원경수, 비올라 김예환, 첼로 전봉초, 소프라노 손운열, 테너 김학상, 피아니스트 윤연 등이 그들이다. 진주 출신의 이상근은 마산여중에서 일하다 윤이상의 추천으로 1953년 부산고등학교 음악교사로 부임했으며, 이후 부산사범학교를 거쳐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에서 정년퇴임했다.

14) 매주 토요일 개최한 향상음악회에는 모든 대원이 순서를 정해 참여했다. 한규동, 『해군정훈음악대약사』, 『정훈음악』 1권 8호, 해군정훈음악대, 1954.11, 21-

오페라 상연도 이루어졌다. 대한오페라단에서는 김대현 작곡 <콩지팻지>(1951.1.21~6, 부산극장)를 상연했다. 외무부, 문충, 해군정훈음악대, 경향신문사 후원으로 “건전한 가극창작”과 “우방국과의 문화교류”를 도모한 공연이다. 한국예술원에서 현제명의 <춘향전> (1951.8.2), 국보여성예술원에서 김대현의 <사랑의 신곡>(부산극장, 1953.5.10)을 상연했다. 다만 오페라 상연에는 부산음악인과의 결합은 밀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¹⁵⁾ 전시작곡가협회와 실험악회의 결성도 전쟁기 부산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금수현이 설립한 새로이출판사의 ‘새로이 피스’¹⁶⁾를 비롯하여 전시음악교과서 『국민학교 새음악』 등이 발간되었다.

이처럼 부산에서는 식민지시대와 해방기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음악사회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한국전쟁이 초래한 지역재편에 힘입어 많은 피란음악인들이 유입됨으로써 전시음악사회를 형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독주회나 독창회를 비롯하여, 군악대 활동, 오페라 제작과 상연, 악보 출판과 전시 음악교과서 발간 등 실로 다채로운 활동이 피란수도 부산에서 이루어졌던 셈이다.

3. 피란수도 부산과 전시음악사회의 형성

1) 한국전쟁과 음악사회의 재편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음악사회는 환도 이후 부산음악사회에

23, 28쪽. 배도순의 독주회와 오일석의 독창회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5) 전시 부산에서 열린 음악회의 구체적인 정보와 프로그램은 제갈삼(2001), 김창욱(2001), 부산발전연구원(2015)의 연구를 참고할 것.

16) <낙동강>(이은상 작시, 윤이상 작곡), <석류>(김세익 작시, 이상근 작곡), <임향한 일편단심>(김리선 작사, 김대현 작곡), <이별의 노래>(쇼팽 곡)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 평가와 맞물려 있다. 이는 환도가 지역음악사회를 규정하는 지배적인 인식틀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환도 이후 부산음악사회에 대한 인식은 역으로 전중기 부산음악사회를 규정하는 창과 같다. 환도 이후 부산음악사회의 동향을 진단한 몇몇 견해를 통해 한국전쟁이 지역음악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상근은 휴전협정 체결 이후 부산음악사회가 “환도에 따른 진공상태”를 맞았다고 기록했다. 제갈삼 또한 “동란으로 이곳으로 피난왔던 많은 음악인들이 속속 환도하는 바람에 이 해의 음악계는 한산한 느낌”이라 회고했다.¹⁷⁾ 피란음악인 중심의 음악활동을 강조하고 입장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방부원은 “1953년 종전 후 많은 음악인들이 부산에 정착하였고 음악가(音樂街)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다”고 하며, 박형태는 “6·25 동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게 하였으나 한편 부산이 임시수도가 됨으로써 부산음악인과 음악도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시기”라 기술했다.¹⁸⁾ 전시음악사회가 지역음악에 미친 영향력을 높이 평가한 견해다. 즉 한국전쟁 이후 부산 정착 음악인들과 한국전쟁이 부산음악인과 음악후속세대에 부과한 ‘새로운 것’의 경험은 환도 이후 부산음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근과 제갈삼이 환도 이후의 부산음악사회를 진공상태 또는 한산한 풍경으로 이해한 반면, 방부원과 박형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해석한다. 그러나 환도 후 음악인의 부산 정착/이탈이라는 틀로만 지역음악사회를 규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환도로 부산음악사회가 진공상태를 맞았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오히려 한국전쟁기는 부산음악사회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했다는 박형태의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시음악사회의 형성과 활동, 이전과는 다른 음악적 경험을 통해 지역음악사회의 발전과 음악후속세대

17) 이상근, 위의 글, 96쪽; 제갈삼, 위의 책, 106쪽.

18) 방부원, 앞의 글; 박형태, 앞의 글.

성장,¹⁹⁾ 새로운 음악문화의 조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중기 피란수도 부산에 전국 음악인이 모여들면서 부산음악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첫째, 부산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피란음악인의 면면을 살펴보자.²⁰⁾

지휘	김생려, 김판기, 임원식, 한병합*
바이올린	정희석, 박민중, 원경수, 안용구, 최영우, 오탈균(지휘)*
첼로	전봉초, 김준덕(지휘)** , 장규상** , 전희봉**
오보에	홍연택(지휘)
피아노	정진우, 김원복, 권기택, 백낙호, 윤연, 신재덕, 정정식, 박정윤, 김순열, 김신덕** , 이경희** , 정에스더* , 안영희* , 석신행* ,
소프라노	김천애, 김혜란, 이관옥, 손윤열, 이경숙, 유경순, 장혜경**
메조 소프라노	이정희
테너	이상춘, 이동일, 이인범, 임만섭, 김학상, 이기영* , 김준선* , 오일석* , 이안드레아*
바리톤	변성엽, 김부열**
작곡	김희조, 김대현, 김동진, 김성태, 김순애, 윤용하, 김상화, 나운영, 함이영, 장수철, 김대현, 박재훈, 함사순*
*은 환도 후 부산에 잔류한 음악인, **은 환도 후 부산에 잔류했다가 1955년 이후 부산을 떠난 음악인, 표시가 없는 경우는 환도와 더불어 부산을 떠난 음악인을 가리키며, 괄호 안은 훗날 주력한 분야를 말한다.	

19) 전후 부산음악사회에서 비중 있게 활동하는 음악후속세대로 첼로 조현진, 피아노 성정희, 김수경, 정원상, 정우영, 소프라노 김봉임, 박정숙, 테너 송인제, 문위승, 바리톤 변창근 등을 들 수 있다.

20) 제갈삼, 박형태, 방부원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박형태, 앞의 글; 방부원, 앞의 글; 제갈삼, 앞의 논문, 2001. 특히 제갈삼은 전쟁기 음악인을 부산도박이, 경남인, 외지정착인, 외지인 정착 후 복귀, 외지인 복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인용문에서 보듯이, 한국전쟁으로 촉발된 음악의 지역재편으로 많은 음악인들이 부산에 터를 잡았다. 작곡과 지휘, 기악과 성악에 이르기까지 영역도 다양하다. 이들 중 정진우, 김원복, 전봉초, 김생려, 이안드레아, 김순열, 김천애 등은 해방기에도 부산에서 연주활동을 한 인물들이다. 일본 유학을 함께하며 부산음악인과 인적 교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거나 서울교향악단과 같은 서울 연주단체의 부산 공연이 계기라 할 수 있다. 군악대의 주둔을 계기로 부산에 정착한 음악인도 적지 않다. 해군 정훈음악대장 김생려와 대원 정희석, 김천애를 비롯해 육군군악학교장 김판기가 대표적이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오일석(오인환)과 청주 출신의 오테균, 첼리스트 김준덕, 장규상, 전희봉은 해군정훈음악대에서 활동했다.²¹⁾ 환도 이후 대부분 서울로 복귀하지만, 한병함, 오테균, 정에스터, 안영희, 석신행, 함사순, 김준덕, 오일석 등은 부산에 정착하였다. 환도 후에도 일정 기간 부산에서 교편을 잡거나 음악활동을 하다가, 1955년 이후부터 1970년대에 서울로 돌아가거나 해외로 이주하기도 했다.²²⁾

둘째, 해방기부터 부산·경남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음악인들을 들 수 있다. 금수현, 배도순, 강수범, 한봉희, 김진안, 김학성, 윤이상, 김호민, 김점덕 등 이 지역 출신 음악인뿐만 아니라 유신, 고태국, 김창배 등 다른 지역 출신 음악인도 해방 이후 부산에 정착하여 활동했다. 이상근, 최인찬, 전경애는 마산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해방기부터 부산음악사회와 일정한 교분관계를 맺고 있었다. 피아니스트 박지로, 소프라노 박정숙, 이선숙, 바리톤 김석준, 박형태 등은 해방기 학생이거나 신인 음악인들로, 전중기와 전후 부산음악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중 군

21) 오테균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초대지휘자로 활동하여 부산지역 교향악 분야에 족적을 남겼으며, 제갈삼과 이상근은 부산대학교, 고태국은 부산교육대학교, 전경애는 신라대학교, 오일석(오인환)은 동아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였다.

22) 김신덕과 김준덕은 1955년 환도했다. 이상근, 「상반기 부산악단」, 『예술집단』 창간호, 현대출판사, 1955.7, 96쪽. 석신행은 피아니스트 이인형의 아내였으나 남편이 월북한 후 김준덕과 결혼하였으며, 훗날 미국 LA에서 살았다. 제갈삼, 앞의 책, 2006, 64쪽.

악대에 입단하여 활동한 경우도 있다.²³⁾ 백경준, 김진문, 박형태, 정원상, 김석준 등 부산에서 활동하거나 후속세대로 성장하던 음악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한국전쟁기 군악대에서 활동했다. 부산사범학교를 졸업한 김석준은 1955년 해군정훈음악대 대원으로 활동하였으며,²⁴⁾ 박정숙, 김석준, 박형태는 김호민이 지휘하는 군 소속 합창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형태는 전중기 학생연합합창단이 경남 학도호국단 문화선전부에 소속되었을 때 책임자로서 군부대와 육군병원 등을 방문해 연주하였다.²⁵⁾ 이처럼 한국전쟁기 부산음악사회는 해방 이후부터 지역에서 활동한 음악인과 피란음악인, 군악대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방기부터 부산에서 활동했던 많은 음악인 중에는 한국전쟁기 들어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선, 이념 문제에 따른 음악사회의 재편으로 전중기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좌파 음악인을 들 수 있다. 해방기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가 전중기부터 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인물로 정복갑과 박용식이 대표적이다. 정복갑은 빼어난 테너였으며, 박용식은 피아니스트, 작곡가, 평론가로 널리 인정받았으나 전쟁 당시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해방 직후 좌파단체인 조선음악가동맹 부산지부 맹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사상 문제로 희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교사-음악가와 딜레탄티즘 기반 아마추어 음악인들이다. 이념에 따른 음악사회의 재편과는 달리 한국전쟁으로 교사-음악인과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활동 중단은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교사-

23) 단정수립 이후 육군과 해군에서 군악대가 정식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음악인들이 군악대 장교, 교관, 단원으로 흡수되었다. 부산의 공연무대에 등장했던 한상기, 탁성록은 각각 해군과 육군의 군악대 장교로 활동무대를 옮긴다.

24) 『(팸플릿) 신인음악회』, 1955.5.20. 김석준은 뒷날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했다.

25) 방부원, 앞의 글; 박형태, 앞의 글.

음악가로는 부산여자중학교 음악교사이자 피아니스트 문한우, 부산공립 상업중학교 음악교사이자 피아니스트 이상한, 경남여자중학교 음악교사이자 테너 김일봉, 남선여자중학교 음악교사이자 플루티스트로 활동한 최술문 등을 들 수 있다. 딜레탄티즘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아마추어 음악인들로는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부산관현악단 서무로 활동한 김재하, 경남여중 체육교사이자 소프라노로 활동한 권복순, 남성여중 교사이자 작곡가·평론가로 활동한 홍일파, 경상남도 사회교육과에 재직하면서 트럼펫을 연주한 김영귀, 남성여중 영어교사이자 테너 신형균, 은행원이자 테너 서정권, 경상남도 학무과에 재직한 베이스 김희룡 등이 그들이다.

그밖에 김학성과 배도순의 실내악 단체에서 활동한 바이올리니스트 백경준은 군악대에 입단했다고 알려져 있으나,²⁶⁾ 전후 활동을 확인하기 어렵다. 제3회 학생피아노연주회(1950.3.23)에서 정진우와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전곡을 연주한 피아니스트 박용해, 부산관현악단에서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 안정기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다 서울로 무대를 옮기거나, 가사 또는 해외유학으로 지역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음악인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전쟁은 지역음악인의 진퇴와 맞물려 지역 음악사회 내부의 재편을 촉발한 측면도 있으나, 피란음악인들의 유입으로 음악사회가 확장되면서 한층 활기를 띠었다고 볼 수 있다.

2) 부산음악사회의 후원과 인적 교류

전중기 부산음악사회는 피란음악인들과 적극적·역동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음악사회는 피란음악인들의 후원자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다. 대표적으로 금수현과 배도순을 들 수 있다.²⁷⁾

26) 박형태, 앞의 글.

금수현은 식민지시대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해방기 경남음악협회 회장, 도립 부산극장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음악사회에 지도를 구축하고 있었다. ‘산집’²⁸⁾이라 불리는 주택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었던 덕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피란음악인들에게 주거와 휴식을 제공했다. 자택 청마루는 연합합창단 연습실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경남여중, 부산사범학교 등에 재직하면서 부산경남 및 대구지역 학교사회에도 인적 교분을 형성하고 있어 피란음악인들이 음악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피아니스트 김순열 부부와 원산에서 피란 온 그의 부모, 서울대 음대 출신의 플루트 주자면서 “악보 정사에 능”했던 이성만과 그의 부인, 남동생 이성천에게는 거처를 제공했으며, 테너 이기영, 작곡가 김달성 등은 부산사범학교에 취업시켰다. 함경도 출신의 동양음악학교 후배 노명을 위해서는 대구의 최병선 장학사에게 취직을 부탁했다. 이러한 활동의 와중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대구 출신의 고태국이 “서라벌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슬라브 합창단”이며 “보련(국민보도연필자)인데 부산에 피해와 당신(금수현-필자)의 추천으로 동래여고에 취직해 있다가 며칠 전에 돌아왔다.”는 이유였다.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전중기 패트론 역할에 위협이 수반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집은 수많은 음악인들이 교류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특히 해군정훈음악대 대장 김생려와 대원들은 일과를 마친 후 이곳에서 회합을 가지

27) 문학사회에서는 김말봉과 오영수가 피란문인들의 패트론 역할을 담당했다.

28) 금수현은 1947년 경남여고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도립 부산극장장으로 초청된다. 경남여고에서 제공한 사택을 비우면서 부산시 중구 대청동에 자택을 마련하고 “산집”이라 불렀다. “터는 400평에다 단 아래에 또 60평, 건평은 50평인데 시멘트를 바른 목조지만 견고하게 지은 집”으로 방 3칸, 거실과 홀, 부엌까지 6실로 구성했다. 수도는 없지만 우물이 2개 있으며 그중 정원에 있는 우물은 60자 깊이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다. 해방기 자비로 창단·운영한 부산극장전속 예술단체 새예술원이 이곳에서 훈련과 숙박을 해결하였다. 금수현, 『나의 시대 70』, 월간음악출판부, 1989, 109-111쪽.

곤 했다. 김생려와 단원들, 흥연택과 부인 김영환, 합창단 단원 전홍 등이 그들이다. 해군정훈음악대는 부산에 주둔하면서 전중기 연주활동의 큰 축을 담당한 음악단체였으며, 뒷날 대원들은 서울에서 음악사회를 주도했다. 그밖에 작곡가 김대현과 이영세, 대구에서 김성태가 찾아오기도 했으며, 대구의 이흥렬이 방문했을 때는 이승학, 서수준, 이성삼, 김학상 등 동양음악학교 출신 음악인들이 결집하기도 했다. 국민음악연구회 회장으로 교과용 도서를 출판하는 이강림이 방문하여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는 훗날 금수현이 새로이출판사를 설립하는 계기이기도 했다.²⁹⁾

이처럼 금수현은 전중기 피란음악인들의 후원자로 자처하면서 거처 제공과 일자리 주선 등 크고 작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산집은 음악인들의 연습 및 활동공간,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금수현은 피란음악인 및 단체와 폭넓게 교류하면서 전시음악사회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볼 수 있다.

배도순이 운영한 다방 문화장도 지역음악사회뿐만 아니라 전시음악사회를 일정하게 뒷받침했다. 해방기에 설립·운영한 문화장은 중구 보수동에 위치한 2층 건물 중 1층에 있었다. 같은 건물 2층은 부산음악연구소로 배도순이 운영한 음악교육기관이었다. 문화장은 차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거리의 음악실로 기능했다. 1948년 6월 14일부터 일주일간 ‘명곡 레코드 감상회’를 진행하며 요일별로 베토벤의 작품을 레코드로 감상하고 마지막 날에는 실연을 함께 했다. 세련된 기획 프로그램이었던 셈이다. 문화장은 음악인뿐만 아니라 문화계 인사, 애호가들이 집결하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음악의 생산과 향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문화 현상이었다.³⁰⁾ 문화장을 기반으로 교류한 음악인은 배도순, 윤이상, 김점덕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부산음악가협회를 기반으로 해방기부터 밀도 높은 결

29) 위의 책, 123-150쪽.

30) 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2021, 43-44쪽.

합 관계를 유지했다.³¹⁾ 이 단체는 부산미국공보원과 결합하여 순수음악을 지향했다.

피란수도 부산의 광복동 일대에 준비했던 다방은 피란문화예술인들의 애환이 가장 질박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며, 피란의 고단함을 달래주던 안식처이자 창작공간, 전시공간이었다.³²⁾ 특히 문화장은 전국에서 모여든 음악인들의 또 다른 위안의 장이자 교류의 공간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공포, 불안, 분노, 혼란, 절망적인 향락 그리고 피난민, 전쟁고아, 결인, 산더미같은 군수물자 이런 것들에 의해 순식간에 부산의 거리는 삭막한 거리로 변했다. 나는 당시 보수동에 문화장이란 다방을 차렸고 해군정훈음악대가 바로 가까운 곳에 있어 이분들과는 **조석으로 만났으며 환도할 때까지 고락을 같이하였다.** 전쟁 속이 음악인들의 생활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절망, 비탄 속에 빠져 흐느끼리라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았다.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너무나 진지하고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써 음악활동을 했다. (중략) 안병소 선배는 윤이상씨와 자주 문화장에 오셨는데 그 거장다운 풍모와 유일한 마스크인 파이프를 매만지던 일이 생각난다. (중략) 세월은 흘러 머리가 반백이 된 나는 그때의 음악인들의 술한 애환과 낭만 그리고 정열을 뿌리고 간 남포동 거리를 오늘도 미소 지으며 거닐어 본다.³³⁾ (진하게-필자)

인용문은 부산음악인 배도순이 한국전쟁 당시 문화장의 풍경을 회고한 글이다. 문화장은 해군정훈음악대의 주둔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31) 전후 이들의 행보도 부산을 떠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배도순은 1958년부터 2년간 1960년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활동했으며, 김점덕은 1970년대 부산을 떠나 『한국가곡사』를 집필하는 한편 평론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두루 알다시피 윤이상은 전후 서울을 거쳐 해외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32) 이순욱 외 여럿, 『피란수도 부산의 문학풍경』,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51~55쪽.

33) 배도순, 「6·25와 나와 음악과-그 속에서의 연주활동」, 『월간음악』 1973년 6월호, 15쪽.

사교와 교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해군정훈음악대는 전중기 연주활동의 큰 축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서울에서 음악사회를 주도한 인물들이 대원으로 활동한 단체다. 해군정훈음악대의 숙소는 “부산시 부평동 2가 13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부산음악인 박형태의 회고에 따르면, 이 숙소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3층짜리 여관 아사히(朝日)였다.³⁴⁾ 해군정훈음악대의 구성원들은 이곳에 “조식으로” 출입하면서 환도할 때까지 고락을 함께했다. 문화장은 군악대를 기반으로 음악활동의 명맥을 유지하던 음악인들의 애환과 낭만, 열정이 깃든 공간이었다.

4. 전시음악단체의 결성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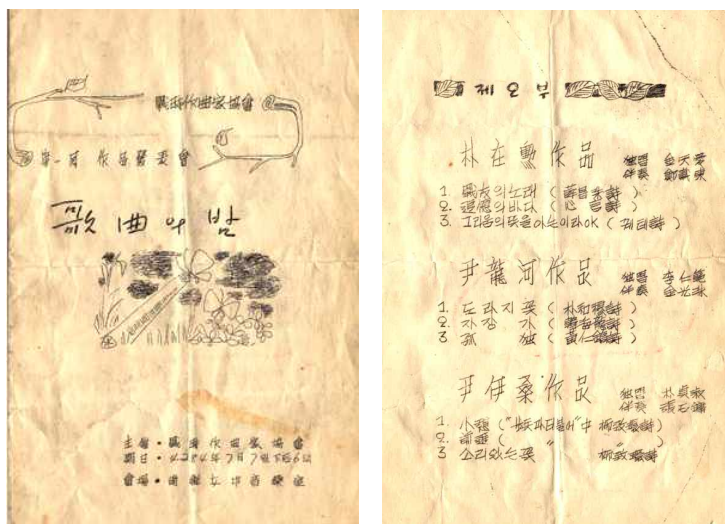
전중기 피란수도 부산에서 결성한 음악단체로 전시작곡가협회와 실험악회를 들 수 있다. 전시작곡가협회는 부산음악인은 물론 부산·경남 문인, 피란음악인들이 결합한 단체이며, 실험악회는 피란음악인을 중심으로 윤이상과 이상근이 가세한 실내악단체다.

1) 전시작곡가협회와 작품활동의 다각화

전시작곡가협회의 결성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윤이상의 부인 이수자는 전시작곡가협회가 1950년 결성되었다고 기술하였다.³⁵⁾ 그러나 음악인들의 피란이 1·4후퇴 이후에 집중되었으며 첫 작품발표회 시기가 1951년 7월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951년 전반기로 추정할 수 있다.

34) 제갈삼, 앞의 책, 2004, 95쪽.

35)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상, 창작과비평사, 1998, 62쪽.



<그림 1> 전시작곡가협회 제1회 작품발표회 팸플릿 표지와 제2부 프로그램

전시작곡가협회 제1회 작품발표회에는 장수철, 김대현, 박재훈, 윤용하, 이상근, 윤이상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주요 동인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지역 작곡가는 이상근과 윤이상이며, 나머지는 피란 작곡가들이다. 윤용하는 종군작곡가로 활동했으며, 1952년 10월 전시작곡가협회 주최로 가곡작곡발표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특히 적극적이었다. 그는 전시작곡가협회의 결성과 해산과정에 관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 사무국장으로 일했던³⁶⁾ 윤이상의 역할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윤용하와 윤이상은 전시동요도 많이 작곡했다. 이들의 작품이 『소년기마대』, 『국민학교 새음악』 등 전시 교과용도서에서 두루 수록된 점을 통해 이들이 전시 국가주의 음악 생산과 향유에 적극적으로 투신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장수철(1917-1966)은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의 작곡

36) 위의 책, 62쪽.

가로, 본명은 장봉주다. 박재훈, 구두회와 함께 평양요한학교 삼총사로 알려져 있다. 뒷날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한다.³⁷⁾ 박재훈(1922-2021)은 잘 알려진 동요 <다람쥐>, <눈꽃송이>의 작곡가로 장수철과는 평양요한학교 동문이다. 선명회합창단 제24대 지휘자로 활동했다는 점, 동요와 찬송가 작곡에 주력했다는 점에서도 두 사람은 밀도 높게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대현(1917-1985)은 함경남도 흥남 출생으로 박재훈과 동경제국고등음악학교 동문이며 서라벌예대 교수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쟁기 부산에서 상연한 오페라 <콩쥐팍쥐>, <사랑의 신곡>을 작곡하였으며 만년에는 기독교에 귀의하여 성가곡을 많이 작곡했다. 윤용하(1922-1965)는 황해도 은율군에서 태어났으며 독실한 가톨릭신자로 알려져 있다. 전쟁기 중군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최전방을 순회하였으며 군가를 많이 창작하였다.³⁸⁾

전시작곡가협회의 주요 동인은 대체로 고향이 북한이며, 기독교 또는 가톨릭신자라는 점, 일부 동인이 같은 학교에서 수학했다는 점, 동요작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전쟁기 문학계에서 카프 계열이나 조선문학가동맹 계열 작가들이 월북하거나 숨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독교 계열 월남문인들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문단에 진입한다고 본다면,³⁹⁾ 월남한 작곡가들 역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치로 결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1951년 후반에 들어 이 단체는 결성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적 해산을 논의하고 있다.

37) 『서정부락』을 발간한 시인 장수철과는 동명이인이다.

38)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한국작곡가사전』, 시공사, 1999, 69, 225, 308-310쪽.

39) 원종찬, 「한국전쟁기 임시 교과서와 반공 아동문학: 『전시생활』·『소년기마대』·『새음악』의 반공 텍스트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64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286쪽.

전시작곡가협회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전적 해산을 단행하고 유능한 젊은 작곡가들을 더 포섭하여서 청년작곡가협회(가칭)로서 새 출발하여 가지고 가곡발표회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동요로부터 교향곡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작품활동을 전개시키고 국민을 위한 노래를 직접 시인(詩人)들의 협력을 얻어서 작곡하고 보급운동에 직접 참가해야겠다. 또 군 당국의 협력을 얻어서 전선에도 시찰하고 보고 느낀 것을 작품화하여 국민에게 들려주어야 되겠고 건설하고 사기양양을 위한 취주악곡도 많이 작곡해야겠다.⁴⁰⁾

인용문에 따르면, 전시작곡가협회는 발전적 해산을 단행하여 젊고 유능한 작곡가들을 포섭하여 청년작곡가협회를 결성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가곡뿐만 아니라 동요부터 교향곡에 이르는 광범위한 작품활동 전개, “국민을 위한 노래”의 작곡과 보급, 종군활동과 시찰 경험의 작품화, 사기 양양을 위한 관악곡 작곡 등을 지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듬해 개최한 윤용하의 가곡작곡발표회가 전시작곡가협회 주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협회는 해산하지 않고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1952년 11월에는 종군작곡가단을 결성하고 전시 작곡활동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으나,⁴¹⁾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윤용하가 종군활동을 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다.

현재 전시작곡가협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증자료는 제1회 작품발표회는 ‘가곡의 밤’이다. 1951년 7월 7일 오후 6시 남선여중(현 남성여고) 음악실에서 개최했다.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장수철 작품, 독창 안경심, 반주 백낙호

설창수 시, 진군의 노래

황금찬 시, 봄바다

40) 윤용하, 「악단의 재건 음악」, 『경향신문』, 1952.1.2, 2면.

41) 「집회」, 『동아일보』, 1952.11.2, 2면.

이병기 시, 파초

이상근 작품

김춘수 시, 경이에게

김춘수 시, 언덕에서

김대현 작품, 독창 손윤열, 반주 김광수

김동리 시, 격멸의 노래

홍두표 시, 새우

<제2부>

박재훈 작품, 독창 김천애, 반주 정재동

설창수 시, 전우의 노래

심언(心言) 시, 추억의 바다

폐테(피테-필자) 시, 그리움의 뜻을 아는 이라야

윤용하 작품, 독창 이인범, 반주 김광수

박화목 시, 도라지꽃

한해룡 시, 자장가

황인호 시, 고독

윤이상 작품, 독창 박정숙, 반주 장석용

유치환 시, 『보병과 더불어』 중 소계(小憩)

유치환 시, 『보병과 더불어』 중 전진

유치환 시, 소리 있는 꽃

프로그램은 반공과 선무, 결전과 위문의 주제의식이 분명한 작품과 전
중기 국민을 위무할 수 있는 서정적인 작품으로 편성했다. 전적으로 국
가주의를 바탕으로 한 선전·선동 음악만으로 구성하지는 않은 셈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설창수 시·장수철 작곡의 <진군의 노래>,
설창수 시·박재훈 작곡의 <전우의 노래>, 유치환 시·윤이상 작곡의

<소개>, <전진>, <소리 있는 꽃> 등을 들 수 있다. 황금찬⁴²⁾ 시·장수철 작곡의 <봄바다>는 비가 내리는 포구에서 돌아오지 않는 소년을 그리는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포구에/ 봄비가 내린다./ 바다가 젖고/ 구름도 젖고/ 돌아오지 않는/ 소년을 그리며/ 혼자 울고 있다.” 소년병을 연상하게 하지만 전술한 작품들처럼 국가주의를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이상근과 윤용하의 작품은 전시 국가주의를 표방한 작품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 다만 이상근은 전시작곡가협회 활동과 별개로 유치환의 『보병과 더불어』(1951)에서 4편의 시를 골라 동명의 칸타타를 작곡하기도 했다.⁴³⁾

유치환은 문충 소속의 종군작가로 종군 경험을 시로 남겼다. 『보병과 더불어』는 종군문인으로 참여해 전쟁의 참상을 표현한 시집으로, ‘동북 전선 종군시초(詩抄)’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그는 자신의 종군을 “미증유의 참화”로 “지리파멸(支離破滅)된 불행한 정신을 재기”하기 위한 노력이며, 수많은 젊은 목숨들이 “인류와 조국의 이름 아래” 바친 “영광과 수난을 증언”하는 것이 시인의 책무라고 하였다.⁴⁴⁾ 종군 당시에는 벽시로 널리 읽히며 사기진작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⁴⁵⁾ <소개(小憩)>와 <전진>은 이 시집에 수록된 동명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했다. 『소개』는 ‘소동정호(小洞庭湖)에서’라는 부제가 붙어있으며 전문은 다음과 같다.

42) 황금찬(1918-2017)은 강원도 속초 출신의 시인으로, 한국전쟁기 강원지역 시동인지 『청포도』의 동인으로 활동했다.

43)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이 작품은 악보가 유실되어 오랫동안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2006년 극적으로 악보가 발견되어 그해 초연되었다. 악보는 2020년 6월 국가등록문화재 제791호로 지정되었다. 이순욱 외 여럿, 앞의 보고서, 2022, 76쪽.

44) 유치환, 「前文」, 『보병과 더불어』, 문예사, 1951.9, 8쪽.

45) 부산일보사 위임, 『임시수도천일』, 부산일보사, 1985, 735-740쪽.

고요히 저무는 황혼의 한때를
이 湖畔에 와서 戰塵을 쉬이노니

아쉬운 담배 연기를 뿜으며
그대 떠나 온 家鄉을 생각는가

恩讐는
끝내 人間事

아침에 원수가 버리고 간 江楓을
뜻 없이 고요히 즐기는다
—유치환, 「小憩」 전문⁴⁶⁾

소동정호는 강원도 통천군 흡곡면에 있는 호수다. 이곳에서 전쟁의 포연이 잠시 멈춘 황혼부터 아침녘까지 고요한 한때를 보내며 고향을 그리는 한편 은혜와 원수라는 인간사의 상념에 젖어드는 경험을 묘사한 시다. 「전진」에는 ‘폐천(沛川)에서’라는 부제를 붙였으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어젯밤 어두이 밀어 든 고을을 버리고
오늘도 또다시 가야만 하노니

午前 3時
닭도 울기 전

새벽달 銀갈구리 서슬 푸르른 아래
묵묵히 戎衣 떨쳐 干戈를 갖추어
나의 마땅히 意志하는 바를
원수에게 깨우치기 위하여선
이 辛酸인들

46) 유치환, 앞의 책, 16-17쪽.

어찌 건디지 않으리

고요히 北辰의 가리치는 쪽
원수의 뒤를 쫓아 나아가노니
—유치환, 「前進」 전문⁴⁷⁾

패전 역시 강원도 통천군의 지명으로, 달빛이 선명한 이른 새벽 전진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신산한 심경과 원수를 갚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묘사하고 있다.

‘3·1절에 드리는 시’라는 부제를 단 「소리 있는 꽃」은 기미만세의거를 노래한 시로, 겨레사랑을 뚜렷하게 표출하고 있다. 윤이상이 작곡한 음악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이 시를 통해 자유에 대한 갈망과 나라사랑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오직 약하므로
어느 하늘에도 호소할 길 없던 한 족속의 절통이
차라리 소리 있는 꽃이 되어
이날 난만히 피어났었나니.

차고 짓밟고
당황하는 억압 발길이 무도할수록 이 꽃은
요원의 불같이 뛰어 번지기만 하여
짐짓 님들 알았으랴.

오로지 어질고 약하던 자가
이같이 강하고 성할 줄이야.
버려지만 같은 겨레의 하나마다
빠개어 불라치면 석류알 같은
자유와 조국에의 아아 이 목마른 갈망이여.

47) 위의 책, 30-31쪽.

그날 아세아 동쪽 적은 반도의 강산은
 끝내 견딜 수 없던 한 족속의 피가
 소리 있는 꽃이 되어 나라를 원통 물들였나니
 해에 해마다 이날이 오면
 그 의로운 꽃은
 나의 겨레의 마음 가운데 다시 피어오르는도다.
 —유치환, 「소리 있는 꽃」 전문⁴⁸⁾

전시작곡가협회는 제1회 작품발표회 팸플릿과 몇몇 신문 기사를 제외하면, 단체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작곡가들이 결합하고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파악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⁴⁹⁾ 다만, 노랫말은 설창수, 김춘수, 유치환, 홍두표 등 부산·경남 기반 문인과 결합한 양상이 뚜렷하다. 설창수(1912-1918)는 경남 창원 출신의 문인이자 언론인으로, 해방기 진주지역에서 매체 『영문』 발간을 주도하고 영남예술제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홍두표(1904-1966)는 경남 진주 문산 출신의 문인으로, 한국전쟁 직전 부산으로 이주했다. 피란문인들과 교류하며 문학활동을 펼친 그는 환도 이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지부장을 지냈다.⁵⁰⁾ 창작 일자가 1939년 가을로 부기되어 있는 「새우(蝦)」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흔히 수집고 웅졸한 習性은
 너를 꿈추의 崎嶇한 슬픔을 만들었고
 억센 波濤와 못 獐惡한 族屬이 무서워
 큰 바위 어미냥 돌틈에 깃드림 오랜저——

48) 유치환, 『청마시집』, 문성당, 1954, 102-103쪽.

49) 기존 연구에서 김성태, 나운영, 박태현이 전시작곡가협회에서 활동했으며 이들의 전시동요가 음악교과서에 실렸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신혜승, 앞의 논문, 69-114쪽.

50) 『文總創立과 文化運動十年小觀』,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1957.2, 126쪽.

그러나 맘은 恒常 北海를 겨누워
 자조 어미의 품을 떠날려던 먼 길에 가넬편 발!
 발들이 근심스러워 閑暇로이 이마를 어루만져
 생각에 저린 두 촉만 길었느냐
 —홍두표, 「새우(蝦)」 전문⁵¹⁾

전시작곡가협회는 1951년 전반기 결성하여 1년 남짓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발표회를 개최하고 중군활동을 논의하였으나 첫 작품발표회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활동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윤이상, 이상근, 윤용하 등이 중군활동, 전시동요 작곡, 중군시를 소재로 한 가곡과 칸타타 창작 등 개인 활동을 통해 전시작곡가협회가 지향한 가치를 이어나갔다고 볼 수 있다. 윤용하가 밝힌 것처럼 전시작곡가협회가 발전적으로 해산하여 청년작곡가협회로 나아갔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전중기 이 단체의 결성과 활동이 전후 부산에서 작곡가동인 Group A의 탄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부산 지역에서 이상근의 음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Group A는 1958년 12월 20일 남성여고강당에서 제1회 발표회 ‘우리 가곡의 밤’을 열었다. 최인찬, 함사순, 이상근, 유신, 최덕해가 구성원이다. 이때 노랫말이 김춘수, 안장현, 김태홍, 이주홍 등 지역문인들의 시라는 점에서 지역 연고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⁵²⁾

2) 실험악회와 새로운 음악적 모색

실험악회는 피란수도 부산에서 결성한 실내악 단체다. 실험악회의 결성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실험악회가 부산에서 “정기연주회”를 가졌다는 기록,⁵³⁾ 1952년 10월 26일 문화극장의 “월례(月例)연주회” 기사,⁵⁴⁾

51) 『영문』 제8집, 영남문학회, 1949.11, 61쪽; 『부산문학』 5집, 문협부산지부, 1973.8, 23쪽.

52) 『(팸플릿) Group A 제1회 발표연주회』, 남성여고 강당, 1958.12.20.

1953년 11월 24일 배재강당에서 제7회 연주회를 개최한다는 기사⁵⁵⁾를 종합할 때, 1952년 초중순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57년 서울실내악회로 개칭했으며, 임원식과 전봉초가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2년 이상근 작곡발표회 팸플릿과 1956년 전봉초의 회고를 통해 실험악회의 결성동기와 지향점, 구성원들의 면면, 활동 성과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다소 장황하지만 실험악회에 관한 거의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전봉초의 회고글 전문을 제시한다.

생각하면 부산의 곤비(困憊)로운 피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 침체된 악단의 무거운 공기가 양성하는 장벽 안에서 뚫고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파상(波狀)적인 충동과 좀 더 새로와보겠다는 젊음의 생리가 이 악회를 만들게 하였던 것이다. 실험악회의 '테에제'는 음악의 본질적 자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또한 그것에다 어떻게 시대적인 호흡을 넣어줄 수 있는나의 실험적 결과로써 작성되었다. 이의 강렬한 상호비판은 우리를 더 한층 결합시켜 주었다. 우리들은 소수인에 의한 새로운 음악에의 가능성은 음악의 보편적 본질과 새로운 표현양식의 탐구와 그의 발견이 우리로 하여금 세대적 임무를 다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우리는 어떠한 작품에 대할 때나 작곡자가 지닌 음악예술에의 관조와 세계관을 통하여 그 음악의 예술성과 보편적 본질의 핵심을 파악하여 이것을 여실히 재현하는 데에만 가치성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연주라는 재현예술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것으로서 연주가의 예술관과 그것을 표현하려는 기술에는 새로운 것과 뒤떨어진 것이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연주는 청중에게 감명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 연주 본래의 사명을 상대방인 청중-산 사고활동의 대표자로서의 청중을 상대로 할 때 우리가 파악하였다고 믿어지는 음악의 역사적 견해

53) 박두석, 『부산의 예술문화』, 부산일보사, 1991, 53쪽.

54) 「문화소식」, 『부산일보』, 1952.10.24, 2면. 이때 임원식, 전봉초, 신재덕, 안용구, 노광욱 등이 출연했다.

55) 「제7회 실험악회 배재중서 연주회」, 『경향신문』, 1953.11.24, 2면. 이때 장석용, 원경수, 안용구, 최영우, 김봉초가 출연했다.

와 시대감각을 악기와 성대를 통하여 전달하고 여기서 오는 반응을 민속(敏速)히 감득(感得)하는 데서 얻어지는 연주자와 청중의 공감점의 발견이 ‘기부 앤드 테이크’의 상호교양으로서 시대를 초극한 음악의 보편적 본질을 파헤쳐 보려는 실험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돈 키호테’적 저돌성에 박차를 가해줬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표현역량의 부족 즉 테크닉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적인 연주를 한번도 못하면서도 의욕이 앞서고 역량이 따르지 못하는 연주회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17회의 연주를 가지는 동안 우리나라에 초연되는 고전과 현대의 많은 작품을 연주했고 우리나라 작품도 적지 않게 소개했고 수다(數多)한 유능한 신인들을 우리 악단에 내보냈으며 이로써 우리의 동지 우리의 지원자도 많이 획득하였다고 본다. 지금 주위를 돌아보면 실험악회 제1회 때의 멤버는 모두 구미로 연구를 위한 오랜 두류(逗留-필자)를 계속하고 ‘올드 맨’으론 나 혼자만 남아있게 되었다. 학교의 직책 관계로 참가치 못하는 동인 신재덕 여사와 노광옥, 안용구, 이정희, 윤이상, 임원식 등 재구미(在歐美)의 제가인(諸可人)⁵⁶⁾들의 뒤를 이어 이성재, 오현명, 정진우, 최영우, 이남수 등 새로운 동인이 이를 계승하여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 음악예술의 본질 추구에서 얻어지는 역성(力性)의 파악과 차원적(次元的)인 창조행위인 소비라는 재현예술을 통하여 음악을 올바르게 실험하려는 정신에서 출발하고 그 위에 보다 더 고차적인 생명의 양자(樣姿)를 나타내어 보려는 우리를 동인의 정신은 이를 찬동하는 젊은 세대에 의하여 항상 새롭고 생명의 약동을 느끼는 보람 있는 일로서 계승될 것이며 역사적 환경의 빈곤과 이로 인한 미해결의 기술이 저절러 놓은 우리를 초창기 동인들의 과오 또한 이들에 의하여 깨끗이 씻어질 것을 믿는 바이다.⁵⁷⁾

인용문에 따르면, 실험악회의 결성은 고단한 피란살이 속에서 침체된 부산악단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파상(波狀)적인 충동”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음의 생리”에서 촉발되었다. 또한 실험악회의 테제는 음악의 본질 파악과 시대적 호흡의 고취에 대한 실험적 결과에서 비롯되

56) 諸歌人の 오기로 보인다.

57) 전봉초, 「실험악회」, 『조선일보』, 1956.6.18, 4면.

었다. 이들은 “음악의 보편적 본질”과 “새로운 표현양식의 탐구와 발견”이 세대적 임무라 확신하고, “음악의 예술성과 보편적 본질의 핵심을 파악하여 이것을 여실히 재현하는 데에만 가치성을 부여”하였다. 이때 “연주자와 청중의 공감점”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이 “시대를 초극한 음악의 보편적 본질”을 탐구하려는 실험정신이며, 실험악회의 지향점이다. 그런데 초창기 실험악회는 테크닉의 부족으로 “전적인 연주”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다. 물론 서양의 고전과 현대작품의 초연, 우리나라 작품의 소개, 유능한 신인들의 발굴과 배출, 이를 통한 “지원자”의 확보는 하나의 성과였다.

결성 당시 동인은 전봉초(1919-2002), 신재덕(1917-1987), 노광욱(1922-?)⁵⁸⁾, 안용구(1928-2013), 이정희(1928-1998), 윤이상(1917-1995), 임원식(1919-2002) 등이며, 훗날 이성재, 오현명, 정진우, 최영우, 이남수 등이 새로운 동인으로 결합하였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들을 “중견음악인들의 연구발표기관”으로 보았다.⁵⁹⁾ 초기 동인들의 연령은 대개 30대 중후반이다. 부산음악인으로는 윤이상이 유일하다.

실험악회는 피란수도 부산에서 5~6회 정도 연주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5년 4월 16일 배재강당에서 열린 제14회 연주회에서는 피아니스트 정진우와 성정희, 바이올리니스트 최영우, 성악가 장상애가 출연했다.⁶⁰⁾ 1956년 4월 2일 제16회 연주회는 그간 지향해 왔던 “소음악회(小音樂會)” 대신 임원식이 지휘하는 육군관현악 반주로 협주곡을 연주했다.⁶¹⁾ 실내악에서 벗어나 협주곡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해 6월 9-10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17회 정기연주회는 “프리마 트리오”의 실내악으로 진행했다. 연주자는 피아노 정진우, 바이올린 최영우, 첼로

58) 평안남도 남포 출생으로 치과의사이자 작곡가로 활동했다. 송방송, 『한국근대음악인사전』, 보고사, 2009.1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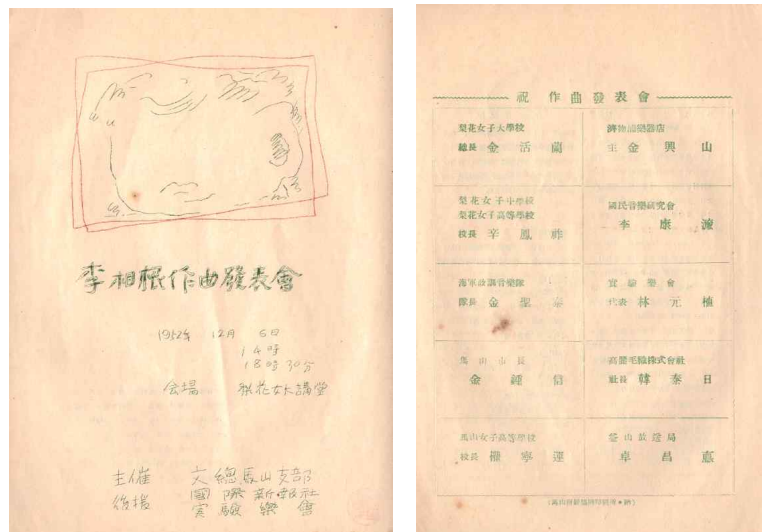
59) 「문화소식」, 『부산일보』, 1952.10.24, 2면.

60) 『(팸플릿) 제14회 실험악회연주회』, 배재강당, 1955.4.16.

61) 오화섭, 「하나의 무시협지대-실험악회 협주곡의 밤」, 『동아일보』, 1956.4.8, 4면.

전봉초로 구성했다.⁶²⁾ 실험악회의 연주회는 제17회 정기연주회가 마지막이다. 바이올린 안용기, “L.람슨”, 비올라 김용삼, 첼로 양재표, 피아노 정순빈, 플루트 고순자를 중심으로 “서울실내악회”로 개칭하여 “실내악운동의 선봉”을 지향했다.⁶³⁾

한국전쟁기 실험악회의 존재를 근거 가운데 하나가 <이상근작곡발표회> 팸플릿이다. 1952년 12월 5일 문충 마산지부 주최로 부산의 이화여대강당에서 개최한 이상근의 작곡발표회는 국제신보사와 함께 실험악회에서 후원했다.



<그림 2> 이상근 작곡발표회 팸플릿 표지(앞, 뒤)

발표회 팸플릿에는 이화여대 총장 김활란, 해군정훈음악대 대장 김성태, 국민음악연구회 이강립, 실험악회 대표 임원식, 부산방송국 탁창덕,

62) 「프리마 트리오 제1회 연주회」, 『조선일보』, 1956.6.8, 4면.

63) 이성재, 「악단 상반기 실내악적 양식의 연주회」, 『경향신문』, 1957.7.25, 4면.

마산시장 김종신 등이 축하 광고를 실었다. 전시피란음악사회에서 이상근의 인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전봉초, 신재덕, 안용구 등 전시음악사회에서 명망을 지닌 실험악회 동인들이 참여했다. 이때 발표한 연주곡목 가운데 실내악곡 및 연주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주명곡(小奏鳴曲)⁶⁴⁾
 … Vn.원경수, Pf.신재덕
 한국아악음악에 의한 일곱 개의 피아노 전주곡 중 제3, 4, 7번
 … Pf.윤연
 현악사중주를 위한 환상조곡 … 1st Vn. 안용구, 2nd Vn. 원경수,
 Va. 김예환, Vc. 전봉초
 피아노삼중주 제1번 … Vn.안용구, Vc.전봉초, Pf.신재덕

실험악회에서 후원한 이 연주회에서 실내악곡 실연을 담당한 연주자의 이름 가운데 전봉초의 회고에 등장하지 않은 음악인은 원경수, 김예환이다. 이 두 사람도 실험악회 동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팸플릿의 축하광고에는 “실험악회 대표 임원식”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임원식이 실험악회를 주도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다.⁶⁵⁾

실험악회를 기반으로 지역 기반 음악인의 약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윤이상을 중심으로 이상근, 정윤주의 실험악회 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상근과 통영 출신 작곡가 정윤주의 발굴과 조명은 실험악회 동인 윤이상의 추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중기 윤이상과 이상근의 교분 관계, 정윤주와 윤이상의 동향의식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작곡가들은 모두가 불우한 환경 속에 있지만은 여기 또한 남만 못지않게 불우한 작곡가가 있으니 이상근씨와 정윤주씨다. 양씨는 모두 그 창작의욕으로나 그 작품의 질로나 확실히 좋은 가능성을 내포

64) 소주명곡은 소나타(sonata)를 말한다.

65) 『(팸플릿) 이상근 작곡발표회』, 이화여대 강당, 1952.12.5.

해 있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주목되어야 할 분들이다. 양씨는 모두 실내악과 관현악작품에 미발표의 작품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작품들이 조속히 실연되고 또 그로 통하여 자신의 기술들에 중량이 가해질 것을 충분히 기대한다.⁶⁶⁾

인용문은 이상근과 정윤주에 관한 윤이상의 논평이다. 창작의욕이 강하며 가능성이 풍부한 두 작곡가에 대해 주목해 줄 것을 호소하며, 발표하지 않은 실내악 작품, 관현악 작품들을 실연하여 작곡 테크닉 연마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나, 이들은 윤이상을 통해 실험악회에서 작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전봉초와 강석희의 대답에서 전봉초는 “실험악회가 부산에서 당시 무명의 윤이상, 정윤주, 이상근 등의 훌륭한 작곡가들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뜻깊은 일”이라 회고했다.⁶⁷⁾ 1969년 문화공보부 창작지원 사업에 정윤주의 <교향곡 제2번>과 이상근의 <교향곡 제5번>이 나란히 선정되었으며, 작품은 제1회 서울음악제(1969.10.30)에서 연주되었다는 점은 실험악회의 또 다른 성과라 볼 수 있다. 지역 작곡가들은 실험악회를 기반으로 작품의 실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동기로 작용했다.

지역음악인의 서울무대 진출 못지않게 실험악회의 실내악활동이 전후 부산음악사회의 실내악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부산에는 해방기부터 배도순의 현악사중주(1950)와 김학성의 현악사중주(1948)가 활동했다.⁶⁸⁾ 이러한 전통과 더불어 전중기 실험악회의 활동은 전후 부산지역에서 배도순의 실내악 연주단체 결성과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배도순을 중심으로 결성한 부산뮤직클럽은 1956년 1월 30-31일 대청장에서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바

66) 윤이상, 「작곡계, 발흥기에 도달하였다」, 『음악』 1956년 4월호, 국민음악연구회, 13쪽.

67) 「70년대 문화접점 4-음악」, 『동아일보』, 1978.9.12, 5면.

68) 남영희, 「해방기 부산음악사 연구」, 2021, 136-140쪽.

이올린 전희봉, 비올라 김용삼, 첼로 김준덕, 앨토 서일선이 출연했으며, 매월 한 차례 연주회를 개최하며 실내악운동을 펼쳐나갔다.⁶⁹⁾ 1958년 제6회 연주회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1990년대 30여 년의 공백을 뚫고 활동을 재개한다.⁷⁰⁾ 배도순의 서울행으로 중단되었던 활동을 재개 하였으나, 1991년 12월 23일 경성대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2회 정기연주회를 마지막으로 다시 중단되고 말았다.⁷¹⁾ 배도순은 해방기의 실내악운동 경험, 자신이 운영한 교육기관 부산음악연구소, 전쟁기 실험악회의 활동 및 구성원들과의 교분을 통해 실내악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마무리

한국전쟁기 음악활동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적 기획에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피란수도 부산에 모여든 음악인들은 군악대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연주활동과 음악단체를 결성함으로써 다채로운 음악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부산음악사회는 근대계몽기부터 구축해 온 문화적 자산과 해방기 부산음악사회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응전하며 전시음악사회를 형성해 나갔다. 특히 피란음악인들에게 거처와 일자리, 안식처를 제공한 부산은 전시음악사회의 후원자이자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지역음악인들이 피란음악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가운데 부산음악사회의 내적 재편이 함께 이루어졌다. 해방기 부산음악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가 전중기 이후 활동을 찾아보기 어려운 일군의 음악인들이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의 칼날에 희생당했거나 교사

69) 제갈삼, 앞의 책, 2006, 61-65쪽.

70) 「뮤직클럽 연주회」, 『부산일보』, 1989.5.2.

71) 『(팸플릿) 제12회 부산뮤직클럽연주회』, 경성대 콘서트홀, 1991.12.23.

-음악가와 딜레탄티즘을 바탕으로 한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방기 부산음악사회에서는 음악활동에 전문음악인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일반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시하였다. 전중기 피란음악인들의 유입과 결합을 통해 음악의 내적 가치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해방기 부산음악사회가 지향했던 가치는 다소 퇴색했다고 볼 수 있다. 환도 이후 피란음악인들은 대부분 서울로 돌아갔지만 그중 일부는 잔류하여 부산음악사회를 새롭게 형성해 나갔다.

금수현, 배도순, 윤이상, 김점덕 등 전후 부산을 떠나 서울이나 해외에서 새로운 기반을 모색한 음악인도 적지 않다. 서울을 거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윤이상이 대표적이다. 해방기 부산에서 음악교사, 첼리스트, 작곡가로 활동한 그는 1953년 9월 부산고등학교를 떠나 서울로 이주했다. 금수현은 1956년 문교부 편수관으로 서울로 이주했으며,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던 아내 전해금도 함께 부산을 떠났다. 바리톤 김점덕은 1970년대 부산을 떠나 한국음악평론가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한국가곡사』(1989)를 편찬하였다. 작곡가 유신 역시 한성여대(현, 경성대)에 재직하다가 1970년대 초반 부산을 떠나 수도여자사범대(현, 세종대), 중앙대, 건국대 등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작곡 및 평론활동을 펼쳤다. 바이올리니스트 배도순은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피란수도 부산에서는 많은 단체가 명멸했다. 전시작곡가협회와 실험악회가 그것이다. 윤용하가 주도한 전시작곡가협회에는 월남작곡가 장수철, 김대현, 박재훈과 부산·경남 작곡가 윤이상, 이상근이 결합했다. 유치환, 김춘수, 홍두표, 설창수 등 부산·경남 기반 문인의 시가 노랫말이었다.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를 내면화한 작품뿐만 아니라 전쟁과 무관한 서정적 주제의 작품도 함께 발표했다. 실험악회는 피란수도 부산에서 임원식, 전봉초, 신재덕, 노광옥, 안용구, 이정희, 윤이상을 중심으로 결성한 연주단체로 음악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였으며, 1957년

서울실내악회로 개칭했다. 이 단체를 통해 윤이상, 이상근, 정윤주의 작품이 연주되었으며, 이는 이들이 전후 작곡가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다. 전시작곡가협회와 실험악회의 결성과 활동은 전후 부산에서 작곡가동인 Group A와 실내악 연주단체 부산뮤직클럽의 결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시음악사회의 형성과 음악단체의 활동을 범박하게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정훈음악과 순수예술의 추구가 그것이다. 전자는 군악대 활동과 전시작곡가협회의 전시가곡 작곡을 예로 들 수 있다. 반공과 국가주의 논리 속에 음악이 전시문화전선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원된 형태다. 후자는 실험악회를 중심으로 시대를 초극한 음악의 보편적 본질 탐구와 전시작곡가협회의 서정적 가곡 창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두 전시라는 특수한 시대에서 음악의 다양한 존재방식이라 하겠다.

전후 부산음악사회가 성장·발달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자리한다. 물론 해방기부터 지속되어온 지역음악사회 내부의 역량이 기반이 되었다. 전중기 부산은 전시음악사회의 핵심지역으로서, 피란수도 부산에서 펼쳐진 전시음악사회의 다채로운 활동은 부산음악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음악후속세대의 발굴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전중기 역동적으로 이루어진 부산음악사회의 재편은 전후 부산음악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자양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음악사에서 배제되거나 소홀하게 취급한 지역 음악사, 특히 한국전쟁기 부산음악사 재구성을 위한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증자료의 발굴과 함께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금수현, 『나의 시대 70』, 월간음악출판부, 1989.
- 박두석, 『부산의 예술문화』, 부산일보사, 1991, 53쪽.
- 부산고등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부산고등학교 60년사』, (주)윤일커뮤니케이션, 2005.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피란수도 부산의 문화예술』, 2015.
- 부산일보사 엮음, 『임시수도천일』, 부산일보사, 1985.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4권, 1991.
- 유치환, 『보병과 더불어』, 문예사, 1951.9.
- _____, 『청마시집』, 문성당, 1954.
- 이강숙 · 김춘미 · 민경찬, 『우리 양악 100년』, 현암사, 2001.
-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상, 창작과비평사, 1998.
- 이순옥 외 여럿, 『피란수도 부산의 문학풍경』,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 제갈삼, 『잊을 수 없는 음악인과 음악회』, 세종출판사, 2006.
- _____, 『초창기 부산음악사』, 세종출판사, 2004.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엮음, 『한국작곡가사전』, 시공사, 1999.
- 『文總創立과 文化運動十年小觀』,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1957.2.
- 『부산문학』 5집, 문협부산지부, 1973.8.
- 『영문』 제8집, 영남문화회, 1949.11.

2. 논문

- 김창옥, 「광복~한국전쟁기의 부산음악계: 부산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 『항도부산』 제16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0, 278-346쪽.
- _____, 「한국전쟁기 부산음악의 사회사」, 『음악학』 제8집, 한국음악학
학회, 2001, 85-129쪽.
- 남영희, 「해방기 부산 음악사회의 동향과 연주단체」, 『지역과 역사』 제
47호, 부경역사연구소, 2020, 285-325쪽.
- _____, 「김학성의 삶과 음악활동」, 『인문과학』 제122집, 연세대학교 인
문학연구원, 2021, 199-243쪽.
- _____, 「해방기 김학성의 초등용 100곡집 『노래모음』과 노래의 정전화」,
『한국문학논총』 제88집, 한국문학회, 2021, 89-136쪽.
- _____, 『부산음악사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남영희 · 이순옥, 「해방기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지역분관의 설립과 문
화활동」, 『석당논총』 제30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0, 78-
109쪽.
- _____, 「해방기 부산 음악교육기관과 음악교육」, 『인문연구』 제
97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211-247쪽.
- 원종찬, 「한국전쟁기 임시 교과서와 반공 아동문학: 『전시생활』 · 『소년
기마대』 · 『새음악』의 반공 텍스트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
구』 제64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285-320쪽.
- 이순옥, 「정전체제의 형성과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 『지역과 역사』
제32호, 부경역사연구소, 2013, 37-65쪽.
- 제갈삼, 「한국전쟁기 부산음악의 실상: 음악인 · 음악단체 · 연주회장 ·
감상실 등을 중심으로」, 『음악학』 제8집, 한국음악학학회, 2001,
131-184쪽.
- 조선우, 「부산현대음악사」, 『항도부산』 제14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7, 65-104쪽.
- 조선우 · 이기정 · 김원명, 「부산음악사 서술을 위한 시론」, 『음악과 민족』
제19호, 민족음악학회, 2000, 71-121쪽.

3. 신문기사

- 「70년대 문화점점 4. 음악」, 『동아일보』, 1978.9.12, 5면.
「문화소식」, 『부산일보』, 1952.10.24, 2면.
「뮤직클럽 연주회」, 『부산일보』, 1989.5.2.
「인사」, 『경향신문』, 1956.2.19, 1면.
「제7회 실험악회 배재중서 연주회」, 『경향신문』, 1953.11.24, 2면.
「집회」, 『동아일보』, 1952.11.2, 2면.
「프리마 트리오 제1회 연주회」, 『조선일보』, 1956.6.8, 4면.
오화섭, 「하나의 무시힘시대-실험악회 협주곡의 밤」, 『동아일보』, 1956.4.8, 4면.
윤용하, 「악단의 재건 음악」, 『경향신문』, 1952.1.2, 2면.
이성재, 「악단 상반기 실내악적 양식의 연주회」, 『경향신문』, 1957.7.25, 4면.
전봉초, 「실험악회」, 『조선일보』, 1956.6.18, 4면.

4. 기타자료

- 박형태, 「음악계의 뿌리와 맥」, 『산여울』 제7집, 부산전문대학, 1986.
방부원, 「해방에서 5·16까지의 부산음악계」, 『(팸플릿) 부산 원로음악가 연주회』, 악천회 주최, 부산산업대 콘서트홀, 1985.6.11, 13-17쪽.
배도순, 「6·25와 나와 음악과-그 속에서의 연주활동」, 『월간음악』 1973년 6월호, 월간음악사.
윤이상, 「작곡계, 발흥기에 도달하였다」, 『음악』 1956년 4월호, 국민음악연구회.
이상근, 「상반기 부산악단」, 『예술집단』 창간호, 현대출판사, 1955.7.
이순욱 외 여럿, 「한국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음악, 작곡가 이상근」, (재)부산문화재단, 2022.

한규동, 「해군정훈음악대약사」, 『정훈음악』 1권 8호, 1954.11.

『(팸플릿) Group A 제1회 발표연주회』, 남성여고 강당, 1958.12.20.

『(팸플릿) 이상근 작곡발표회』, 이화여대 강당, 1952.12.5.

『(팸플릿) 전시작곡가협회 제1회 작품발표회』, 남선여중 강당, 1951.7.7.

『(팸플릿) 제12회 부산뮤직클럽연주회』, 경성대 콘서트홀, 1991.12.23.

『(팸플릿) 제14회 실험악회연주회』, 배재강당, 1955.4.16.

<Abstract>

Wartime Music Society in Busan during the Korean War

Nam, Young-H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activities of the wartime music society that took place in Busan, the provisional capital of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The port city of Busan is rich in cultural assets that have been built since the modern Enlightenment. Based on this, even before the war, various activities were actively conducted in the Busan. In addition, Busan musicians served as patrons for musicians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escape the war. These factors support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wartime music society in Busan and became the basis for various musical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wartime music society, the reorganization of the Busan music society also took place. The activities of teacher-musicians and amateur musicians, who played a large part in the Busan music society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declined after the war. Some musicians were sacrificed to anti-communist ideology during the war. After the war, the Busan music society was newly formed around musicians who remained in Busan without returning to Seoul and musicians who moved to Busan. While Yun Isang, Gum Su-Hyun, Bae Doh-Soon, Lee

* Pusan National University

Sang-Keun, Kim Jeom-Duk expanded their activities in Seoul.

The Wartime Composers' Association and the Experimental Music Association were organized during the Korean War. The activities of these groups were examined through empirical data such as pamphlets and newspaper articl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new experiments were attempted to pursue the diversification of composition and to explore the essential value of music. It can be said that music during the wartime was used for anti-communist ideology and nationalistic logic, while activities to pursue the inner value of music were developed together. This study confirmed that Busan musician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new the music society after the war by actively interacting and cooperating with the wartime music society.

Key Words: Wartime Capital, Busan, Korean War, Wartime Composers' Association, Experimental Music Association, Yun Isang, Gum Su-Hyun, Bae Doh-Soon, Lee Sang-Keun, Kim Jeom-Duk

■ 논문접수 : 2022년 07월 29일

■ 심사완료 : 2022년 08월 22일

■ 게재확정 : 2022년 08월 22일